

84년 世界石油生産動向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84년도 세계원유 및 天然가스생산량은 前年보다 2.3% 늘어난 28억톤으로 4년간 연속적인 감소후에 처음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非OPEC산유국의 생산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이들의 생산량은 12억톤으로 5%가 증가하였다.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생산량은 上半期에 크게 회복되었으나, 3/4분기에는 다시 감소하여 84년 전체로 볼 때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소련은 생산이 부진했으나, 中共은 증가하였다. 共產圈을 제외한 자유세계의 추정생산량은 2,070백만톤으로 2.9% 증가하였다. 이 증가량은 OECD제국의 純소비증加分 2.2% 보다 많으며, 이량은 브라질, 에집트, 印度와 같은 非OECD 國들의 대폭적인 생산량 증가분이다.

OPEC은 10년간 큰 변동없어

84년도 OPEC의 원유생산량은 867백만톤으로 83년의 865.5백만톤보다 약간 늘었다. 그러나 84년이 윤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日平均은 17.4백만배럴 이하로 변동이 없다. 84년 상반기에는 17.9백만b/d, 3/4분기에는 16.9백만b/d, 10월에는 16.7백만b/d를 기록했다. 11월 및 12월에도 10월달경의 16백만b/d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기타 OPEC국들의 생산량 감축분은 주로 이란과 나이지

리아가 생산상한선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增産함에 따라 상쇄되었다. 아부다비와 가봉도 계획량보다 더 많이 생산했을 것이다. 4/4분기 OPEC의 원유생산량은 평균 약 16.7백만b/d 수준이며, 이는 일부 회원국들이 세계석유수요의 회복에 따라 그들의 생산상한선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4년도 총원유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볼 때 83년 이후 OPEC의 주요변동사항은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이란은 크게 감소했고, 리비아, 알제리, 아부다비 등은 약간씩 줄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OPEC의 원유생산 점유율은 수급이 절정을 이루었던 73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다. OPEC의 점유율은 73년 53%에서 79년 48%로 떨어졌으며, 그후 80년대에도 계속 하락하여 80년 43%에서 84년에는 31%로 더욱 낮아졌다.

OPEC의 원유생산량은 73년 15억톤 이상에서 84년 8.7억톤 이하로 감소한 반면, 기타 非OPEC 자유세계의 생산량은 8.5억톤 이하에서 거의 12억톤으로 증가했으며, 共產圈의 생산량도 73년 약 5억톤에서 7.5억톤으로 늘었다.

결국 세계원유생산량은 32억톤으로 절정을 이루었던 7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73년 29억톤에서 84년 28억톤으로 약간 감소함으로써 지난 11년 동안 비교적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다.

84년 世界石油 生産현황 (추정치)

OPEC의 비중 계속 감소

(단위: 천톤)

OPEC의 장기적인 생산감소현상은 73/74년과 79/80년의 石油危機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石油開發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73년 이후 産油國의 숫자는 60개국 이하에서 거의 80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새로운 産油國들은 주로 유럽, 아프리카 및 極東지역의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産油量은 국내수요의 自給自足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兪소산유國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중 英國, 노르웨이 및 이집트만이 석유수출국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産油國 가운데서는 멕시코와 中共이 역시 석유의 純수출국으로서 7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OPEC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세계원유 수출의 비중도 79년 80%에서 현재 60%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나 OPEC은 세계석유시장을 계속 좌우하고 있다. OPEC의 생산능력이 약 29백만b/d이고 석유매장량도 자유세계의 77%, 전세계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결국 OPEC이 공급해야 할 것이다.

84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中南美, 西歐, 아프리카 및 極東지역이다.

美國은 아직도 자유세계의 최대産油國으로서 알라스카의 원유생산량은 약 1% 정도 증가하였으나, 기타 48개주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상쇄되었다. 그러나 NGL의 생산량이 거의 5% 증가함에 따라 총원유생산량은 487백만톤(약 10.4백만b/d: 원유 8.8백만b/d와 NGL 1.6백만b/d)으로 늘어났다. 알라스카의 원유생산은 Kuparuk의 第2生産시설이 가동함에 따라 3/4분기부터 증가하였으며, 80년대말 새로운 油田이 생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의 생산량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83년말부터 시작된 상승추세가 계속되어 84년에는 약 7% 증가한 것 같다. 캐나다의 원유생산량중에도 상당한 양의 NGL이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의 원유생산은 OPEC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 겨우 2%가 증

국 명	생 산 량			구 성 비	
	1983	1984	증감%	1983	1984
北 美 國	480,123	487,000	+ 1.4	17.4	17.3
캐 나 다	76,777	82,000	+ 6.8	2.8	2.9
小 計	556,900	569,000	+ 2.2	20.2	20.2
中 美	147,295	150,000	+ 1.8	5.3	5.3
백 시 코	95,345	95,000	- 0.4	3.5	3.4
베 네 수 엘 라	7,870	8,550	+ 8.6		
콜 롬 비 아	8,253	8,000	- 3.1		
트 리 니 다 드	650	700	+ 7.7		
쿠 바	355	250	-29.6		
과 테 말 라	55	85	+54.5		
바 르 바 도 스	259,823	262,585	+ 1.1	9.4	9.3
小 計					
南 美	24,877	24,000	- 3.5		
아 르헨티나	16,915	24,000	+41.9		
브 라 질	12,080	12,800	+ 6.0		
에 콰도르	8,476	9,000	+ 6.2		
페 칠레	1,840	1,800	- 2.2		
볼 리 비 아	1,027	950	- 7.5		
小 計	65,215	72,550	+13.1	2.4	2.6
西 歐	114,917	125,000	+ 8.8	4.2	4.4
英 國	30,480	34,500	+13.2	1.1	1.2
노 르 웨 이	4,157	4,100	- 1.4		
西 獨	2,900	3,500	+20.7		
네 덜 란 드	2,980	2,500	-16.1		
스 케 인	2,196	2,400	+ 9.3		
이 탈 리 아	2,153	2,335	+ 8.5		
덴 마 크	1,661	2,000	+20.4		
프 랑 스	1,241	1,350	+ 8.8		
그 리 스	1,269	1,250	- 1.5		
오 스트 리 아	24	25	+ 4.2		
스 웨 덴	163,978	178,960	+ 9.1	6.0	6.3
小 計					
東 歐 國	616,000	615,500	- 0.1	22.4	21.8
소 련	11,600	12,000	+ 3.4		
루 마 니 아	4,125	4,000	- 3.0		
유 고	4,000	3,000	-25.0		
알 바 니 아	2,005	2,000	- 0.2		
항 가 리	300	300	-		
불 가 리 아					

□ 世界石油市場 □

국 명	생 산 량			구 성 비	
	1983	1984	증감%	1983	1984
폴 란 드	250	250	-		
체 코	95	95	-		
東 獨	60	60	-		
小 計	638,435	637,205	- 0.2	23.2	22.6
아 프 리 카					
나 이지 리아*	61,050	68,000	+11.4	2.2	2.4
리 비 아*	53,260	52,500	- 1.4	1.9	1.9
이 집 트	36,330	43,000	+18.4	1.3	1.5
알 제 리 아*	30,690	29,500	- 3.8	1.1	1.0
앙 골 라	8,303	9,500	+14.3		
가 봉*	7,685	8,000	+ 4.1		
카 메 룬	5,608	6,500	+15.9		
튀 니 지	5,578	5,400	- 3.2		
콩 고	4,241	4,500	+ 6.1		
자 이 레	1,214	1,200	- 1.2		
아이보리코스트	1,000	1,000	-		
베 닌	250	400	+60.0		
가 나	60	60	-		
모 로 코	25	25	-		
小 計	215,294	229,585	+ 6.6	7.8	8.2
中 東					
사우디아라비아*	249,160	235,000	- 5.7	9.0	8.3
이 란*	122,930	105,000	-14.6	4.5	3.7
이 라 크*	46,760	58,500	+25.1	1.7	2.1
쿠 웨 이 트*	53,380	58,000	+ 8.7	1.9	2.1
아 부 다 비*	37,470	36,000	- 3.9	1.4	1.3
오 만	18,600	20,000	+ 7.5		
카 타 르*	12,985	18,800	+44.8		
두 바 이*	16,830	16,500	- 2.0		
시 리 아	9,360	9,000	- 3.8		
샤 르 자*	1,845	2,700	+46.3		
터 키	2,206	2,000	- 9.3		
바 레 인	2,049	2,000	- 2.4		
라스알카이마*	-	300	-		
이 스 라 엘	12	12	-		
小 計	573,587	563,812	- 1.7	20.8	20.0
極 東					
中 共	105,972	110,000	+ 3.8	3.8	3.9
인 도 네 시 아*	64,080	70,500	+10.0	2.3	2.5
印 度	25,100	28,000	+11.6		
濠 洲	19,604	23,000	+17.3		
말 레 이 지 아	18,500	21,000	+13.5		
브 루 네 이	8,750	8,000	- 8.6		

국 명	생 산 량			구 성 비	
	1983	1984	증감%	1983	1984
버 마	1,355	1,400	+ 3.3		
파 키 스 탄	560	900	+60.7		
뉴 질 란 드	661	800	+21.0		
필 리 핀	645	600	- 7.0		
태 국	307	500	+62.9		
日 本	423	430	- 0.7		
台 灣	175	175	-		
小 計	246,132	265,305	+ 7.8	8.9	9.4
OPEC : 原油	865,550	867,100	+ 0.2	31.4	30.8
OPEC : NGLc)	35,000	38,000	+ 8.6	1.3	1.3
OPEC : 計	900,550	905,100	+ 0.5	32.7	32.1
기타 自由世界	1,109,407	1,164,697	+ 5.0	40.3	41.4
共 産 圏	744,407	747,205	+ 0.3	27.0	26.5
世 界 計	2,754,364	2,817,002	+ 2.3	100.0	100.0

*는 OPEC 회원국. 사우디와 이라크를 제외한 83년도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은 최근 발간된 OPEC's Annual Statistical Bulletin의 통계를 사용했음. 사우디의 83년도 통계는 同國의 Monetary Agency가 편찬한 자료에 의거했으며 이라크의 통계는 석유업계의 추정치임. 84년도 통계는 Petroleum Economist사의 추정치임.

註 : 1) 원유와 Gas Condensate를 합한 수치임. 美國,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량 가운데는 상당한 양의 NGL이 포함되었음. OPEC의 NGL 생산량은 별항으로 취급했으나 각 회원국의 원유생산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2) 사우디의 생산량은 중립지대의 생산량도 포함됨.

가한 약 150백만톤에 달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95백만톤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으며, 에콰도르와 페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中南美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海上석유생산이 계속 늘어나 총원유생산량도 84년 말에는 530천b/d로 증가했고, 85년 중반에는 550천b/d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4년의 하루 평균생산량은 480천b/d(연 24백만톤)로 49%가 증가했다. 콜롬비아 역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84년말 165천b/d에서 90년에는 400천b/d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西歐 9% 증가

西歐는 총생산량이 9%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北海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英國,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의 총北海생산량은 3.2 백만b/d로 무려 11%가 증가했다. 英國의 생산량은 지난 2년간 생산을 시작한 여러개의 새로운 北海油田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84년에는 총 125백만톤으로 9%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要因중에는 鉸夫들의 파업으로 重油의 수요가 급증한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수출용 경질 원유의 생산증가는 OPEC의 우려를 초래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생산량은 13%나 증가했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생산량이 늘어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石油探査·開發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량이 증가했다. 西獨은 발틱海에서의 석유생산이 개시됐다.

北阿의 OPEC회원국인 알제리와 리비아는 변동이 별로 없으나, 이집트는 생산량이 계속 증가했다. 이집트는 지난 해 11월 OPEC에 대한 동정으로 생산량을 약간 줄였으나, 10월까지 900천b/d를 생산했으며, 84년 평균으로는 850b/d를 생산, 18%가 증가했다.

西阿의 나이지리아는 中東산유국들의 생산 억제 덕분에 83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생산량이 84년에는 다시 회복되었다. 가봉은 한때 원유생산이 84년 9백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非OPEC산유국 가운데 앙골라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앙골라는 지난 해 200천b/d 수준을 유지했으며, 500천b/d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메룬의 생산량 역시 90년에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東생산량의 불확실성

中東지역의 생산량은 84년 뿐만 아니라 83년도 통계도 매우 불확실하다. 이 지역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83년도 산유량은 평균 500만b/d로 알려졌으나, OPEC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

면, 454만b/d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사우디의 비축분일 수도 있으며, 또한 OPEC에서 밝힌 이라크의 생산량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라크의 생산량이 일부 사우디의 생산량으로 계산됐을 지도 모른다.

이라크의 83년 생산실적은 낮은 쪽을 사용했고, 사우디의 생산량은 높은 것을 택했다. 따라서 83년도 사우디의 생산량은 249백만톤으로 잡았을 때, 84년도 추정생산량은 235백만톤으로 6%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해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특히 이라크는 분명히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라크는 수출용 送油管의 확장으로 덕을 보았으나, 이란은 4/4분기에는 생산과 수출이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84년 전체로 볼 때 유조선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과 이러한 위협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15%나 생산이 감소되었다. Ras al-Khaimah는 近海에서 Condensate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OPEC 수출국의 대열에 새로 끼게 되었다.

中東산유국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별 변동이 없으나, 極東지역은 東南亞, 인도, 南洋洲의 해양 석유개발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中共도 陸上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늘어났다. 中共은 84년 110백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70.5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9월까지 1.5백만b/d씩 생산하다가 그 후 1.2백만b/d로 감축했다.

極東지역은 증가

印度는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동안 14백만톤을 생산, 12% 증가했으며, 84년 전체로는 적어도 28백만톤을 생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印度의 장기적인 목표는 2백만b/d(100만톤/年)이다.

濠洲의 생산량은 지난 9월 Bass 해협에서의 일시적인 생산중단에도 불구하고 17% 증가한 23백만톤에 달했다. 석유생산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및 뉴질랜드에서도 증가했다. 말레이시아는 84년 중반에 이미 연간목표를 달성했으며, 파키스탄은 8개월 동안에 倍增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泰國의 Condensate 생산은 海洋가스개발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최근 기존의 Condensate

□ 世界石油市場 □

ate생산외에 원유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소련의 생산통계는 불완전하며 東歐의 생산량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은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석유생산은 기술과 관리상의 문제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84년도 당초 생산목표인 624백만톤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83년도 수준인 616백만톤에도 미달했다. 85년도 소련의 생산목표는 628백만톤이다.

루마니아는 오래된 油田에서의 2次採收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2백만톤을 생산했다. 루마니아의 장기적인 생산목표는 13백만톤/年이다.

최근 黑海에서의 석유탄사는 실패했다. 기타 東歐圈국가들은 큰 변동이 없으나, 알바니아만은 지난 2년간 석유생산이 1/3이나 감소,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미확인 보도들은 전하고 있다. *

〈Petroleum Economist誌, 1985. 1월호〉

□ 石油需給動向 □

美 1월중 原油수입 17% 감소

국제油價 續落 期待로

국제원유가격이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인 美國의 수입물량 또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수요부족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美석유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원유 시세가 몇차례의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美國의 수입업자들이 원유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지난 1월중에만도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6.9%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입량 감소율은 물량으로 따져 일당 8억 7천만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공급과잉상태에 신음하는 국제원유시장과 수급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美석유협회는 덧붙였다.

또한 수입물량이 줄어들면서 美國시장에서의

수입원유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전체시장의 30.8%에 달했던 수입원유 점유비율이 금년들어서는 26%로 떨어졌다.

그러나 美석유협회는 이같은 수입감소현상이 美國내수요가 감소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국제원유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이란 전망아래 수입업자들이 외국산원유도입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국제원유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美國의 원유수입량은 다시 종전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美석유협회는 국내석유 수급실태자료를 통해 지난 1월중 석유소비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약 3%가량 줄어든 1백61억 5천만 배럴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가격 또한 가솔린을 제외한 전종목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